

社說

공직자 혁신수준

포천시 공직사회 혁신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혁신 전도사(리더)로 인정받는 간부 공무원 부재 및 부서장의 혁신에 대한 관심과 실천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포천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혁신활동 인식수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응답자 98%가 혁신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75.5%로 나타나 공무원 자신들도 공직사회 개혁수준이 미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직내부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조직내부의 의사소통이 지시와 명령체계가 강한 행정구조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

대를 맞아 포천시가 공직자의 식개혁과 혁신을 위해 예산을 투입 정책토론회 등을 주최하면서 교육적인 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만큼 공직사회 조직의 복지부동한 구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업무프로세스 등 관행적인 업무개선 및 수직적인 조직보다는 분권적, 수평적, 인격적 상호관계 설정을 통한 하급자의 의사결정에 참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시는 이같은 인식수준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혁신수준 업그레이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도시 기반

포천시가 5대 권역의 시립도서관 건립과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교육도시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포천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교육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칭 '포천시인재 장학재단'의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모금에 나설 계획인 재경포천시민회의 장학기금 100억원과 더불어 포천의 인재육성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이 마련된다면 포천시는 훌륭한 인재양성의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위원회가 설립되면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지원책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권역에 추진중인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지역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훌륭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립중앙도서관은 2009년까지 포천시 군내면 청성문화체육공원 인근에 신축할 계획으로 이같이 권역별로 시립도서관이 완공되면 독서문화공간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발굴 및 협의, 장단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장학기금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되는 가칭 '포천시인재 장학재단'은 교육여건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수 인재 및 우수 학교를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교육경쟁력이 지역경쟁력과 점차 동일시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훌륭한 문화유산의 보고인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郷土원로초대석 ⑱ …… 前 송우 우체국장 장병수

自活농원 운영하며 미래의 꿈 키워

“自由는 비싼 댓가로 얻어지는 값진 것”



장 병 수 전 송우 우체국장

1961년9월1일 영등포 우체국 행정서기로 발령 받아 1963년3월31일 청량우체국, 1968년5월3일 제109군사우체국장 취임, 1969년4월23일 가평군 조종우체국장, 1969년11월15일 송우우체국장으로 취임하여 1988년12월30일 정년퇴임 할 때까지 근무한 장병수(75·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개나리아파트) 응을 만났다.

장 병수는 개성이 고향이며 1949년6월13일

1사단 11연대에 자원입대하여 1958년3월1일 제98육군병원에서 일등상사로 명예제대 한 상이용사다. 이 시기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장 병수는 1953년1월21일 연천 서북방 지금의 태풍전방대 앞 배터고개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중 박격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제98육군병원으로 후송돼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전역 후에도 장 병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1961년 영등포 우체국 행정서기로 발령 받았다. 가평을 거쳐 송우우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변의 땅을 평당 130원에 1필지, 평당 90원에 1필지 등 2필지 3천여평을 매입해 '재활농장'이라고 간판을 걸고 정원수 등을 가꾸었다. 세월이 흘러 재활농장은 도시개발로 평당 130원하던 땅은 평당 200만원, 평당 90원하던 땅은 30만원 등의 토지보상을 받아 2남녀의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줬다고 한다.

국가의 중요한 대사를 담은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증거로 삼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는 장병수는 "남에게 피해 안주고 내

힘으로"를 좌우명으로 삼아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한다.

장 병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이란 뜻의 '天壽', 천주교의 세례명 '야고보'라는 이름도 있다고 소개한다. 장 병수는 육군병원에서 있을 때도 환자들에게 노래와 간증을 했다. 이때 '몸은 비록 불구지만 마음은 불구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환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장 병수는 송우우체국장 재직시절에 동네에 자주 나가 농사일에 바쁜 주민들에게 막걸리를 대접했는데 이때 주민들은 "우체국장이 막걸리를 받아주었다"며 기뻐하기도 했다.

장 병수는 요즘 세대들에게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살기를 부탁한다"며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서 안된다"고 강조한다. 개미와 같이 일해야 한다. 성경에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다.

장 병수는 신부와 수녀처럼 혼자 살겠다는 결심을 했으나 사상에 사정인 장준하씨의 부친 장석인 목사의 소개로 부산에서 결혼하여 2남녀를 두었다.

장 병수는 화랑무공훈장(1951.7.20) 수상, 자활모범 원호처장 표창(1972.6.9), 새마을 모범 국무총리 표창(1976.6.3), 제5회 경기 원호대상 수상(1977.6.23), 20년 근속제신부장관 표창(1981.4.22), 대통령표창(정년퇴임시 1988.12.30), 제16회 한국보훈대상 수상(1989.6.13)의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장 병수는 정장 미체형세대에 대해 당부한다. "자유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굳은 신념과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 잘못을 되풀이 하는 법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경구로서 6.25의 쓰라린 교훈을 결코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포천신문 구독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장 병수는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병수는 또 그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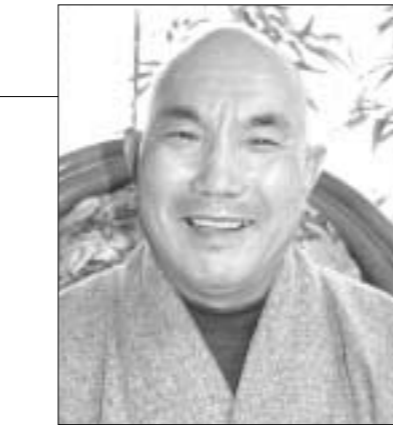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나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세대(後世)에 전승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종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 또한 어떤 것이 생명체에 필요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격려하여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을 건져 줄 수 있는 것이 거시안적인 종교관이라고 생각한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보문정사 석혜승(보문 김경익·62·사진) 주지님은 최근 우리현실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종교의 이데올로기화를 우려하는 석혜승 주지님은 "종교라는 틀 안에 집어넣고 꼼꼼히 할 수 없게 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큰 시각으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



하기도 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구성원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포천신문과의 관계는 최효열 발행인을 만나면서 부터다. 초기에 포천신문을 발행할 때부터 자원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다. 포천인들에게 일깨워주는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좋은 일들도 많이 하는 지역신문으로서 손색이 없다. 포천신문이 포천시

“종교의 이데올로기화 지양 거시안적 시각 필요”

‘포천인들을 일깨워 주는 소식지’ 역할 돋보여

고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990년 보문정사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포천 지역에 덕을 베풀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각종 봉사활동에도 남다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보문정사는 민간의 기도도량으로서 역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석혜승 주지님은 "불교라는 한 우물에 가두지 않고 종교라는 거시안적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신도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며 "종교를 떠나 인격도야의 교육, 수도 도량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포천시시립불교연합회 회장을 2대에 걸쳐 수행하면서 포천시는 유교사상이 다른 지역보다 강해 공자님 사상을 갖춘 인간적이고 순박한 사람들이 많아 오염되지 않을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비단도 수를 더하듯이 순박한 마음 바탕 위에 종교인의 더 좋은 가르침으로 인격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포교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문정사와 가까이 있는 송우리 지역은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사회로 성인들의 가르침으로 교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양성은 결국 다양한 주장들이 서로 상충하면서 갈등을 야기

민들에게 뉴스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신문으로 종 교적이지 않은 전문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문제 등을 자문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나 우암정사에서 득도하여 불교에 귀의한 석혜승 스님은 종로구 사간동에 있는 법문사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신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는 종교보다는 깨달음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어 확신을 갖는 믿음생활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맹신적 믿음보다는 깨닫게 됨으로써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강조하며 믿음으로 눈을 많이 가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포교원장, 포천시시립연합회 회장직 2대 수행, 포천경찰서 경승실장으로 활동중인 석혜승 스님의 법명은 "부처님의 지혜를 그대로 이어가라"는 뜻이다.

포천신문을 통해 포천신문 독자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는 칼럼을 연재하여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한근

포천건축사 사무소 대표

"부동산매매에 있어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와 매매자의 투기목적이 아닌 매매의 경우에는 편의를 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에게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리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포천건축사사무소 김한근(41·사진·포천시 신음동) 대표를 만났다.

포천시 신음동이 고향인 김 대표는 포천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지난 98년12월 16일 건축사면허증을 취득하고 1999년7월 16일 포천건축사사무소를 오픈했다. 12년간 근무했던 공직생활을 마감한 것은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로 자유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善人事待天命(모든일에 최선을 다하자)”를 좌우명으로 삼고 노력해온 김



를 운영하면서 관내 대학 교수에 치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장이 성남에 있는 경원대학교 교수로 이 교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영입했다면 포천시 도시계획 추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의 영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공대 출신으로 미국 MIT에서 공부한 김진에 교수의 '프로로 자라기'를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소개하는 김

“포천에 아름다운 건축물 많이 짓겠다”

“전문직에 전문기를 배치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대표는 "포천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짓겠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내촌의 해남퍼맥스와 일동시립도서관 등을 건축설계 했다. 해남퍼맥스의 경우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동화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일동시립도서관의 경우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서 1층에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색상도 연한 푸른색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최첨단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자연채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동면 입구에 건축하여 랜드마크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김 대표는 포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비록 600평의 작은 규모이지만 도시 디자인이 파격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향후 포천건축사사무소의 비전에 대해 김 대표는 "포천시가 본격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따라 포천에서 내세울만한 건축을 직접 설계하고 싶다"며 "도시계획은 서울에서 인접한 소흘읍과 가산면,포천면,군내면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포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

김 대표는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경주 고적담사로 풀어낸다고 한다. 고적담사는 고건축양식을 담사하여 설계에 참고로 하고 있으며 일산, 중동 신도시 등의 건물양식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김 대표가 포천시에 바라는 것은 "전문직에 전문기를 배치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김 대표는 10년 후에는 직접 설계하여 신축한 사옥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의정부공립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김 대표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북 대학 건축설계과를 졸업하고 국립 서울 산업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 지난 9월1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포천시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 수영협회 이사,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포천신문사 운영위원으로서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포천시 재난관리민간기술단 심의위원, 수영협회 이사,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포천동주민자치위원회와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위원으로도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창간 16주년 기념식

12월15일 오후5시 송우웨딩홀

본지 창간 제16주년 기념식이 오는 12월15일 오후5시 송우웨딩홀에서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 및 본지 소속 각 위원회와 독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본지는 1990년1월15일 창간되었으며 최효열 발행인이 본지를 인수한 것은 2000년8

월이며 재창간호는 2000년10월25일에 발행됐다.

그동안 창간기념일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본지 운영위원회에서 창간 기념을 매년 12월15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창간 기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본지는 그동안 主人意識·正論直筆·文化賜達를 사시로 하여 포천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

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본지 최효열 발행인은 제16주년 창간기념식에 대해 "재창간 이후 5년만에 독자여러분들과 관내 기관단체장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지역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간기념식에는 각급 기관장 표창과 초대 대표 이사인 박옥용 포천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및 재창간 이후 여러 가지 자문을 아끼지 않은 자문위원에 대한 감사패도 전달할 계획이며 2부 화합의 시간은 탤런트 김성현씨의 사회와 가수 버들리퍼가 출연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운영위원회 제47차 정기회의

창간 제16주년 기념식 준비 회의

본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지난 18일 오후7시 제47차 정기회의를 20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오는 12월15일 개최하는 창간 16주년 기념식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안 처리 등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본지 주부명예기자단에서 실시한 '사랑의 김치 전달식'에 운영위원회가 양념재료비 80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추

인과 불우이웃돕기운동에 적극 나서서고 결의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간기념식에 소요되는 예산안 선 지출하고 행사 후에 정산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본지 최효열 발행인은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본지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이용 위원장은 "관내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을 돕기위해 지속적인 모금운동과 실제 전달을 통해 학생들이 큰 용기를 얻고 있다"며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불우이웃돕기 창구 운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지 최효열 발행인은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본지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제47차 정기회의를 20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오는 12월15일 개최하는 창간 16주년 기념식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안 처리 등 안건을 의결했다.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pricing.